

불교대중화·세계화에 힘썼던 구산 스님

보조사상 연구, 학술대회서 조명

구산수연(九山 垂蓮; 1910~1983) 스님(사진)은 1970년대 미주를 순방하며 해외 포교당을 건립하고 송광사에 최초로 국제 선원을 개원하는 등 해외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또한 스님은 수행자이면서 500자 혈서로 평화운동을 이끌어온 개혁가이다.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11월 19일 서울 법연사에서 근현대 선지식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제2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법산 스님이 기조강연을 통해 구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했고 신규학 교수(연세대 철학과)가 '구산 선사상'의 상당범어집(구산선론)분석 시론'을, 김방용 교수(충남대 철학과)가 '구산 수련의 선 사상'을, 한동민 학예팀장(수원박물관)이 '1950년대 구산 수련의 종단 정화운동'을, 문경순 박사(전북대 철학과)가 '구산 수련의 불교대중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법산 스님은 "스님께서 남긴 7바라밀의 생활불교실천운동을 되살리기 위해 송광사는 전국 불일회를 재흥시켜야 하며 '불일회보'를 복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산 스님은 "종단 역시 구산 스님의 정화정신을 자성과 쇄신결사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순 박사는 주제발표에서 불교대중화에 힘쓴 구산 스님의 업적을 조명했다. 구산 스님은 800여 년 전 보조 지눌이 돈오점수·정혜쌍수를 이념으로 전개한 정혜결사운동을 계승해 '제2 정혜결사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스님은 1969년 신행·후원단체인 불일회(佛日會)를 결성했으며 송광사 분원인 법연사를 개원했다.

문 박사는 "지눌의 정혜정신을 계승하는데 평생을 바친 구산 스님의 유훈은 1987년 보조사상연구원의 발족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보조사상연구원은 불교학과 및 인접학문의 국내외 전문학자와 신진학자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한편 토론의 장을 펼쳐 불교계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산 스님은 1969년부터 대중포교의 원력으로 일반인을 중심으로 대중 수련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문 박사는 "최근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템플스테이가 있기까지 일찍이 구산 스님이 장려한 송광사 수련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구산 스님은 칠바라밀(바라밀행)을 매일 실천하는 법)을 주창하기도 했다.

문경순 박사는 "구산 스님의 자애로운 풍모는 수많은 참선수행자들을 배출하게 했다. 또한 내실을 기하는 수행과 포교의 기반을 구축해간 것 모두 구산 스님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문 박사는 구산 스님의 국제적인 안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구산 스님은 한국 최초의 국제선원인 불일국제선원을 개원해 외국인을 승려로 받아들였으며 여기서 배출된 로버트 버스웰은 세계적인 학자로 한국선을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했다"고 말했다.

한동민 학예팀장은 구산 스님의 혈서투쟁을 조명했다. 한 학예팀장은 "구산 스님은 1955년 500자 혈서로 정화불사의 당위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 정화의 결의를 굳게 다졌다"며 "구산 스님은 교단정화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보여준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다"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둔황과 인도·네팔 사본 한자리서 살핀다

30일 오후 3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제19차 콜로키움에서

국내에서는 드물게 둔황과 인도·네팔 문헌 사본을 통한 학술행사가 열린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소장 김천학)은 11월 30일 오후 3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둔황(敦煌)사본과 인도·네팔 사본'을 주제로 제19차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인문학연구원(인문)의 일환으로 열

리는 행사에는 ▷이케다 마사노리(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fellowship연구원)이 '둔황(敦煌)출토 설편종(彌論宗) 문헌 연구' ▷이영진(금강대 HK연구원)가 '하리바드라의 부자연스러운 해석(forced interpretation)'을 주제로 발표했다. (041)731-3614 조동섭 기자

죽음이 두렵다면 어찌 살지를 고민하라



11월 19일 밝은사람들연구소 학술연찬회에서 발제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황금연 외래교수(동국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대)

밝은사람들 연구 '죽음' 주제로 제10회 학술연찬회 열어 초기불교·선불교·서양철학·현대학 분야별 정리

죽음은 인생의 끝일까, 또 다른 시작점일까. 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한 삶이 정리되고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윤회의 과정이라고 말한다. 현대학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개체성의 상실'이라고 표현한다. 또 서양철학에서는 죽음을 유한하지만 그 안에 무한의 정신이 존재한다고 본다.

초기불교와 인도·티베트 불교, 선불교, 서양철학과 현대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삶과 관련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다.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국)는 11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주제로 제10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좌장인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철학과)의 진행으로 정준영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안성두 교수(서울대 철학과), 황금연 외래교수(동국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서울대 철학과), 우희중 교수(서울대 수의대)가 발제를 맡았다.

정준영 교수는 '슬퍼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를 주제로 초기불교의 생사관을 살폈다.

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주로 사용되는 죽음의 두 가지 개념인 마라나(marana)와 쪼피(cuti)로 죽음을 설명했다.

정준영 교수는 "마라나는 오온의 생리적 기능이 멎는 죽음을 뜻하고, 쪼피는 죽음을 통해 한 존재에서 다른 존재로의 윤회를 의미한다"며 "일반 범부는 죽는 순간 죽음의 의식이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이어짐으로써 의식의 흐름은 지속돼 생사가 반복되는 윤회의 삶을 산다"고 말했다.

초기불교에는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이 제시됐다. 이를 소개한 정 교수는 "초기경전은 칠각지(七覺支), 염치수행 등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행법이 질병으로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괴로움의 무게를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행자가 지혜와 실천을 통해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볼 수 있을 때 삶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나 윤회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불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라는 수행 안에서 죽음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법도 제시한다"며 죽음을 관찰하는 '사수념(死隨念)'과 죽은 몸을 관찰하는 '부정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성두 교수는 '죽음 앞에서 참된 자신을 발견하기'를 주제로 인도·티베트 불교의 생사관을 조명했다.

안 교수는 물질적 세계는 "끊임없는 식의 흐름 속에서 구성되고 수용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라며 초기불교와 아비달마 논서를 중심으로 대승불교의 생사관을 논했다.

안성두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해 부정관과 사념(死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아비달마 논서의 경우 재생과정에서 결생의 순간까지 설명하며 식이 물질의 자아의 업(業)에 따라 구조화한다는 흥미로운 불교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대승 보살사상이 생사와 열반 그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둘을 원만하게 조화시켜 '무주처열반의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교수는 티베트불교에서는 죽음에 대한 예비적 수행단계와 본격적 수행으로서 죽음에 대한 관상법을 현교와 밀교 두 방식으로 설명하면서 죽음의 관상법(觀想法)으로 '무상요가탄트라'라는 핵심 수행법을 소개했다.

황금연 외래교수는 '생사가 일어나니,

죽음이란 낯은 옷 벗는 것일 뿐'을 주제로 선불교의 생사관을 살폈다.

황 교수는 "인생 8고 중 하나인 죽음이 나머지 7개의 고를 한꺼번에 모두 다 종식시킨다"고 언급하며 중국 선사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고찰했다.

황금연 외래교수는 "중국 선사들이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 그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즉 생사가 없으므로 삶을 좇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생사에 초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서 황 외래교수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선사들이 행한 수행과 이를 통해

불교에서의 죽음은 두려움 아니다

삶·죽음이 둘 아님 알면 매사 담담

서양철학에서도 죽음에의 자세 중시

삶의 마무리 고민이 죽음 문제 해결

생사일여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보여준 다양한 입적의 모습들을 선불교의 역사를 따라가며 소개했다.

황 외래교수에 따르면 선가에서 일반적 으로 볼 수 있는 입적 양상은 좌탈입망(坐脫立亡)과 육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경우, 사체가 썩지 않는 경우 등이 있었다.

황 외래교수는 "선가야말로 연기(緣起)의 이치에 가장 충실히 부합해 살다간 이들이 아닐까 한다. 선가의 삶과 죽음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면 만사에 담담한 살림살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국 교수는 '극한의 한계상황으로서의 죽음'을 주제로 현대 서양철학의 생사관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와 니체, 하이데거를 중심으로 서양 철학에서 죽음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인간은 언젠가 죽어야 하는 '필연성과 유한성'의 존재로서 '가능성과 무한성'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두 대립과 모순을 종합해야만 한다"며 "또한 죽음 자체가 사후에 관한 존재론적 논의보다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의 한계로서의 죽음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박찬국 교수는 극단의 유한성에 매몰되는 속물적 태도나 결정론 내지 운명론적, 허무주의적, 이원론적 태도도 아닌 제3의 길, '진정한 종합'의 길을 통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 길만이 유한성과 무한성을 아우르는 중도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우희중 교수는 '현대학은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현대학의 생사관에 대해 논의했다.

우 교수는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죽음을 '개체성의 상실'로 정의하며, 개체가 지닌 고유성의 종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우 교수는 "생명현상의 개체고유성은 구성적 실체가 없이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비롯된 결과물'"이라며 "죽음과 더불어 개체는 사라져도 '나를 이루었고 또 나를 통해 펼쳐진 업은 또 다른 관계의 바다에서 이합집산, 생로병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대과학이나 의학에서의 죽음의 정의에는 동의하지만, 현대과학·의학이 죽음에 대해 갖는 막강한 권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우 교수는 "각 생명체의 삶과 고유성이 죽음으로 사라질 때,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의 문제이기에 결국 '죽음은 삶의 문제'이며, 따라서 죽음을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너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9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아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11월 중

◆개강일시 : 2011년 11월 개강. 매주(월, 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급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육 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양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학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